출가자 급감에 조계종 출가 홍보 '잰걸음'

교육원, 출가자 모집 공고… 내년 1~2월 집중 모집

출가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진 2016년 이후 출가자는 150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위태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홍보까지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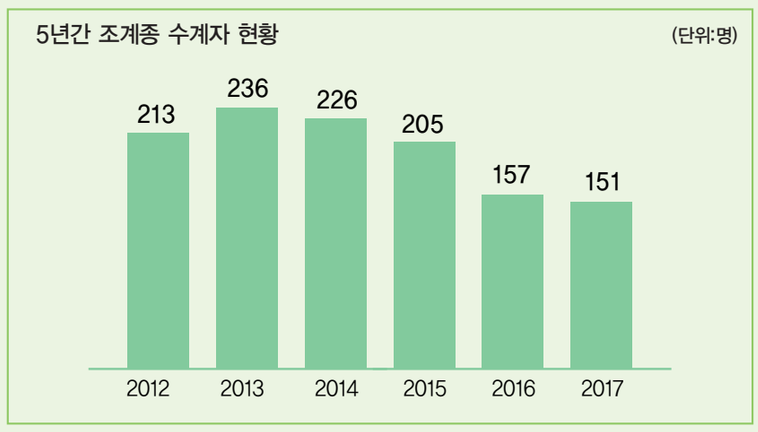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주제로 2018년도 상반기 출가자를 모집한다. 내년 1~2월을 중심으로 출가를 독려하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서 출가 모집하는 까닭은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모집 홍보에 나선 것은 급감하고 있는 출가자 수 때문이다.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출가자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출가 예상자 수는 120~130명 선이다. 현재 내년 3월 사미·사미니 수계를 준비 중인 행자는 약 80명 정도. 평균적 중도퇴사율 27%를 감안하면 실제 수계 받을 인원은 60명 정도에 그친다. 2년 만에 한 해 출가자 150명 선도 무너진 것이다.

종단 사상 첫 출가자 모집 공고
2016년 200명 선 무너진 이후
출가자 감소 속도 점차 빨라져
내년 출가자 120명 급감 예상
종단 상설행자교육원 설립 등
"출가 문화 변화해야" 주장도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비구니 스님 예비군인 여 행자의 급격한 감소와 출가 고령화다. 여 행자의 경우 2014년 86명이 출가했지만, 2015년 75명, 2016년 53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특히 10~20대 여성 출가자는 2015·2016년 2년 동안 26명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출가자들이 늘어나는 출가 고령화는 승단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가자 중 40대 이상 출가자는 78명으로 이는 전체 출가자의 49.6%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출가자 감소가 매우 빠르고, 고령화도 심각하다"면서 "종단이 나서서 출가 안내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출가자 모집 진행 어떻게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출가자들을 집중 모집한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종단·교구본사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출가 모집 홍보를 시작한다. 또한 포스터 2500부를 제작해 템플스테이 사찰, 군법당, 대불련, 동국대 등에 배포해 출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가 모집 대상은 자유인을 꿈꾸는 만 13~50세 이하이다. 출가자에게는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의료 등이 일체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입원진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 등 혜택이 추가된다.

조계종의 출가 모집 홍보와 더불어 현 출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자들에 대해 교육보다 사찰 인력으로 활용하는 절집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미 일본의 종단과 사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한국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출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인에게 현재 출가 문화는 잘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1~3년 이상 출가해보고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는 기간제 출가나 중·고등학생을 선발·지원해 출가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잘 교육시켜 종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상설행자교육원 설립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출가 문화를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人文 함께하는 문화재기관 발돋움 기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재단 설립 10주년 성과는

2000년 유산발굴단으로 출발
2007년 재단화, 전문기관 초석
사지·성보 조사·발굴 사업 진행
불교문화재 활용 등 향후 과제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재 전문 발굴·연구 기관인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00년 조계종 문화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오대산 월정사·군위 인각사 발굴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불교문화재를 전문 연구·발굴 기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돼 재단법인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창립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대표적 성과는 '전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9)'이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한 1차 기초조사가 이뤄졌다. 사업기간 동안 3400여 사찰에 소장된 16만3000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목록화했다.

2014년부터는 사찰 소장 목판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는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화재·습기 등에 노출된 사찰 목판들의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폐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한 점도 주요한 성과다. 전국 약 5400여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10년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을 통해 1차적인 성과를 냈다. 총람을 통해 전국에 산포된 사지의 규모와 문헌에만 확인되는 사지를 제외한 현장조사 대상 사지 4500곳을 정리했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매년 현장 조사 대상 사지를 조사해 〈한국의 사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발굴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일신하고 있다. 대표 발굴 사례로는 행주산성을 들 수 있다. 국가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에서 대해 고양시 의뢰로 발굴을 진행한 결과 삼국시대 추정 석성(石城)을 발견했다. 이는 토성(土城)으로 알려졌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 결과였다.

최근 서울 도봉서원 하층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영국사 위치와 혜거국사가 동명이인임이 확인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년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사진은 연구원들이 발굴 유적을 정리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인화 이후 꾸준한 성과를 내온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향후 과제는 11월 30일 열린 10주년 기념세미나들의 발제를 통해 정리된다.

특히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의 제언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의 결합 △불교문화재 활용 사업 △인문과 과학의 조화 등을 향후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손 위원은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되면 불교문화재 수리의 보존처리, 관리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불교문화재연구소도 이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추진 단계부터 준공, 운영까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당당한 주역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문화재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가치 확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보존 연구와 조사를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종단에 필요한 미래 문화재 종책 개발과 분단된 우리 역사에 불교문화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소가 짊어지고 갈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은 인생 잘 채워 회향하겠다"

법산 스님, 고희 기념 저서 출판 기념회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고희기념 논집 〈선과 문화〉 〈백장암 선시, 나는 누구인가?〉 〈뜻으로 풀어본 금강경 읽기〉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간 기념회는 법산 스님〈사진〉이 동국대 측에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고, 또 청년 불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출판 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 등 스님들과 신규탁 연세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등 스님과 인연이 있는 학자, 동산반야회 회원 등 불자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도 대거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이날 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과의 인연을 일일이 소개하며 "항상 바보스럽게 팔푼이로 살고 있다. 남은 인생 이푼을 잘 채울 때 까지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출간된 논집과 시집 등 3권의 저서는 통도사 백장암에서 스님이 수좌 스님들과 함께 참구하며 느낀 심상과 〈금강경〉에 대한 평생의 정진 결과를 담은 것이다.

고희 출판기념회에는 스님의 도반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만 유학 시절 함께 동고동락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대만에서 법산 스님의 공양주 보살 역할을 했다"며 말문을 뗐다. 스님은 이어 "스님은 항상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학문 연구를 하는 학자에서 수행을 하는 수좌로, 또 다시 시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계에서 주저 없이 포교하고 있는 법산 스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중을 대표한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은 "이번에 펴낸 책은 〈금강경〉을 도반으로 산 스님의 삶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금강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으고 이를 다시 시로도 표현한 경지가 놀랍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